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 못난이 화엄 세상

홍사성

못난이는 누구든지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에 가을 일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벌레든  
꽃이든 나비든 흙이든 물이든  
꼭 한번 가을 일이다  
가서 깨달을 일이다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  
그 부처가 어떻게 화엄 세상 만드는지  
뒤틀어진 몸으로서 있는 기둥은 나무부처  
돌계단에 드러누운 장대석은 돌부처  
빛바랜 단청 속에는 나비부처  
움마루에는 이끼 낀 기와부처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부처, 부처, 부처  
하찮은 중생도 여기서는 부처가 되나니  
거지같이 살아온 인생도 황제가 되나니  
누구나 별 볼 일 없이 걸은 길 억울하거든  
전라남도 구례 땅 화엄사 각황전에 가을 일이다  
가서 못난이 부처나 되어볼 일이다  
부처 구경이라도 하고 올 일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홍사성 시인은... 1951년 강원도 강릉 출생.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 시집 〈내년에 사는 밤〉 등.

# 방장스님 입적 183일, 어지러운 백양사

## 주지 시몽 스님 측 산중총회·감사 거부... 종단은 정상화 천명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이 입적한 지 183일, 깊게 굽은 백양사의 갈등을 내홍을 넘어 총무원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장 스님의 부재는 물론 선, 교, 율이 하나로 모인 총림의 위상도 찾기 힘들다. 현재 강원도에 수학 중인 학인은 대교반 5명, 선원에는 10명 가량이 이번 안거에 방부를 들었다. 총무원과의 대립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 조계종 총무부는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사 현 집행부에 대해 민형사 고발 등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무부가 지적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산중총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3차례의 종단 감사 거부 △부속품 증정 명의 도용 △주지 스님의 비위 등이다. 총무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방장 스님 입적 6개월이 지났지만 종현 중법에 따른 산중총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산중 원로회의’라는 임의적인 모임을 만들었다”며 “이는 종현 중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감사팀이 재정 자료 열람으로 확인한 사실들도 공개했다.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적법하지 않은 차입과 차용과 수 억원대의 경성비 부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총무원과 공동 예치해야 하는 문화재구역입장료와 토지 처분금 예치금이 종단 승인 없이 임의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반에 시몽 스님은 약간의 재정이 편법적으로 사용됐고, 그것을 다시 채울 수 있

표했다.

시몽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죄가 있다면 벌은 달게 받겠다. 이는 개인적인 것이지 백양사 사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중총회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산중총회를 열어도 신·구가 대립하고 분

**총무원 “민형사 고발”  
비위 금액 13억원 추정  
은행 지급정지 추진**

도록 시간을 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총무부는 감사를 종결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근거로 △현 백양사 집행부 민형사상 고발 △승려법과 총무원 법상 징계 △백양사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등의 조치와 함께 시몽 스님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런 총무원의 조치에 시몽 스님은 별다른 부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무원의 일방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시몽스님 “벌은 받겠다”  
산중총회는 분란만 가중  
일방적 감사 수용 못해**

란만 가져온다. 산중총회법 이전부터 원로가 사중을 이끄는 산중 고유의 방식이 있었다”며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 중앙총회와 총무원에 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단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전담 팩스로 일정을 통보하는 식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으며, 강원 학인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원이 제시한 개혁안을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주지와 반대 측에 있는 고불

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4년 간 백양사가 현 주지 스님의 토크같이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몽 스님은 주지 임기 동안 기본적인 예불도 잘 모시지 않았다. 소임자들이 모두 바깥으로 몰았다. 제대로 사람이 운영될 리가 만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중원로회의는 대부분 현 주지 스님의 측근들이고, 자격 미달인 스님들이 대부분”이라며 “빠른 시일 내 주지 교체가 이뤄져야 총무행정 공백이 줄어들고 백양사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몽 스님의 남은 임기는 앞으로 10여 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그 임기도 짧아질 수 있다. 문제는 비위진 자리다. 종단에서 종현중법에 따라 직무대행을 파견해 주지를 선출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가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실제 시몽 스님은 9월 2, 3일 산중원로회의와 임회를 열고 자신의 퇴임 이후 백양사 운영 계획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기도 했다. 〈차주 상보〉

방장 수산 스님이 가진 지 200일이 돼 가지만, 문제의 실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韓中불교는 한 뿌리, 불교 세계화 나서자”

## 한중 수교 20년 ‘차하얼 포럼’서 연설한 영담 스님

“한국과 중국의 정신문화의 근간은 불교에 있습니다. 한국, 중국불교는 공유와 공영의 역사와 동근(同根)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이번 중국 ‘차하얼 포럼’ 연설에서는 두 나라 불교의 역사성을 주목하고 함께 불교 세계화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교방송 이사장이자 (사)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장인 영담 스님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차하얼포럼’에서 불교 대표로 연설한 주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원하는 ‘차하얼 포럼’은 중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주요한 외교정보와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중요한 회의이다. 영담 스님은 ‘차하얼 포럼’에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오랜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세계화라는 같은 목표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중국인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혜능, 김교각 등신불  
한국 방문 추진 제의  
뮤지컬 ‘원효’ 관심 당부**

“한국과 중국불교가 두터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의 역사와 가치가 양국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양국 불교의 유대는 불교 세계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영담 스님은 한·중불교 교류를 위한 몇 가지 교류 사업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 측에 육조 혜능대사와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팔만대장경 1천년을 맞아 이를 복각해 한·중·일 삼국에 나눠 봉안할 것도 제의했구요. 또한 11월부터 중국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하게 될 뮤지컬 ‘원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스님은 중국불교의 관제화보다는 무분별한 상업화를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중국불교가 관제불교라는 비판은 많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상업화입니다. 모든 사찰들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명산 명찰에 있는 사찰들 모두 관광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대로 된 스님들은 중국불교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하고 있지만, 그보다 상업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불교 전통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신종일 기자

## 표창사 前 주지, 토지 처분 후 해외도피 8만여 평 매각...통도사 형사고발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의 수말사인 표창사가 前 주지 스님의 횡령으로 목숨을 앓고 있다. 前 주지 스님의 불법으로 매각한 토지는 8만 여 평에 달하고 액수도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 스님이 처분한 토지는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소재의 표창사 소유 임야와 전답이다. 상황이 알려지자 본사인 통도사는 자체 조사를 들어갔고, 총무원 역시 인력을 파견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스 스님이 해외로 도피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정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 스님은 횡령과 도피를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총무원과 통도사는 보고 있다. 통장 잔고까지 수 백만원 정도만 남겨두고, 종단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등기 이전도 최대한 늦췄다. 토지 등기 이전은 8월 10일 이뤄졌다.

통도사는 8월 28일 스 스님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민사소송과 토지 처분금지 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신종일 기자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www.buddhabook.co.kr

Click!!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

108 Prostrations of Great Repentance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붓다북 오프라인 매장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 ☎ 02-953-7181